



'79 鷄界

〈肉用業界를 中心으로〉

1979년 1월 15일 현재, 양계인은 울고 있다. 육계시세의 폭락, 육용초생추의 덩핑난무, 사료파동, 육류수입개방과 축산 정책에 대한 절망적인 회의, 질병만연과 기타의 제반악조건- 등!

왜 이렇게 되고 있으며 양계인은 어떻게 해야 웃을 수 있을 것인가?



신 정 일

(유일농원 영업부장)

1. 현황

가. 600 - 400 (육계 생산원가와 출하가격)

78년 11월 하순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육계시세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년시를 외면하고 계속 떨어져 한달 반이 지난 79년 1월 15일 현재, 생산농가에는 닭이 팔리지 않아 평균체중 2.7~2.8kg의 70~80일령 육계가 사양되고 있으며 서울지역의 차량대상시세가 kg당 480원이 이하이고, 충청도 상인이 인천시장에 도착가격 450원에 풀고 있으며, 장호원 일대의 생산자는 닭이 개와 같이 커서 사료만 먹고 출하할 수가 없어서 kg당 300원에 가져가라고 호소를 해도 팔리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1월 28일이 구정으로 닭고기 소비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밀려있는 육계물량과 사회전반적인 경기위축을 생각할 때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으며

구정에 육계 소비가 활발치 아니할 경우 그 후유증은 2월 중순까지 미쳐 계속적인 저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용육계 생산원가가 600원일 때 출하가격 300원은 1,000羽當 60만원 안팎의 적자를 나타내며, 출하가격 400원은 약 40만원 내외의 손해를 생산자에게 안겨 주게 된다.

나. 150 - 50 (육용초생추 생산원가와 판매가격)

년말년시와 구정병아리로 간주되는 78년 10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의 초생추를 최대한 입추한 뒤 78년 12월부터 입추조절을 시작하면서부터 부화업체는 서서히 초생추 판매가 어려워 졌다. 초생추 판매난은 12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심각해졌고 하순과 신년 초순에는 소나기 속의 모래사태같이 무너져 내렸고 1월 중순 현재 최저 덩핑가격 50원설이 분분하며, 판매치 못한 육용초생추를 땅을 파고 묻었

다스니, 개천에 버렸다스니 혹은 드럼통 속에 물을 부어 넣으면서 버렸다는 등의 최악의 상태하에 놓여 있다.

육계가격이 호전되지 않고 구정을 넘어 계속 저시세를 나타낸다면 초생추 판매의 어려움도 계속되어질 것이고, 12월부터 시작된 불경기가 만약 2월하순까지 지속된다면 재정적으로 흔들리는 부화업체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사료파동

그 원인이야 어디 있던간에 최근 자주 나타나고 있는 사료구입의 어려움에 대하여 양계인들은 마음속의 분노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사양수수의 증가에 따른 수요확대라든가 강피류를 비롯한 부원료의 절대량 부족 혹은 옥수수 수입공급상에 어떤 차질(수송등)이 생겼든가 현재의 국내 사료생산시설로는 생산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등의 이유들로서는 사료물량을 원활히 공급치 못하고 있는 결과적 사실에 대한 납득을 양계인들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경제의 일부 부분으로서 불가문제 때문에 사료가격이 묶여 있으므로 각 사료회사들이 적자를 면하기 위하여 품질이 낮은 사료를 공급하는 것까지는 양계인들이 이해한다. 사료의 품질이 나빠서 생산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감수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이기 위한 물량만큼은 원활히 공급해 줘야 할 것이며 이것이 잘 되지 아니하고 있는 책임은 사료생산과 관련된 모든 단체나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1979년 1월 15일 현재 육계생산자들은 사료를 구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료회사의 눈치를 살피고, 최우선적으로 사료대금을 준비하는 등, 그래도 사료

가 제때에 제물량이 도착되지 않아 불안하다.

라. 육류수입 개방정책

78년 1월과 79년 올해의 1월은 축산정책면에서 완전히 반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78년초의 축산은 정부의 강력한 장려정책으로 가장 관심있는 「이슈」로 등장했고 신문지상의 기사도 육류의 폭발적 수요증가라든가 축산장려로 생산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매우 희망적인 내용들이었으며 장덕진 전농수산부 장관의 축산진흥에 대한 열의와 추진력은 대단하였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이 이제 겨우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쇠고기 생산 포기라는 극단적인 상태까지 당국의 정책이 돌변하였다. 비교생산비설에 입각하여 국제 경쟁력 없는 농산물은 무조건 수입하여 공급한다는 것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생유를 제외한 모든 유제품, 닭고기 등이 수입 개방되거나 개방될 처지에 놓여 있다. 출산장려금까지 주던 한우정책, 그렇게 장려하던 비육우, 낙농정책이 하루아침에 문밖으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다.

비교생산비론이나 경제적 합리주의와 수익성 원칙에서 공업이 농업보다 우선이라든가 물가안정등의 이유있는 정책때문에 육류를 수입공급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국내 축산생산기반을 완전 붕괴시키는 극단적인 정책은 다땅히 고쳐져야 한다. 국내 축산업을 보호육성하면서 육류를 수입공급하는 정책운영의 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외국의 선례에도 허다하게 많다.

정책입안담당관들은 더욱 잘 알겠지만 국제정세의 변화는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불허이다. 육류가 국민식생활에서 기초식품이나 반찬의 입장을 떠나서 완전한 주

류식품으로 등장되었는데, 지속적인 외국 수입에 완전의존하다가 급변하는 국제기류에 따라 그 수입공급의 길이 막히게 될 경우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 식량부족은 시멘트와 같은 전재부족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인간에게는 현실보다 장래의 희망이 더욱 중요하다.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육류수입이 불가피하더라도 국내 축산생산기반의 보호 육성과 반드시 병행 실시 되어야 한다.

마. 질병 및 기타.

계구밀도의 증가와 함께 질병만연의 가능성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78년 10월경부터 대구지역에서 발생시작한 뉴캐슬은 79년 1월 초순경에 겨우 잡히기 시작하였고, 부산지역이 이의 바톤을 이어 받아 79년 1월 초순부터 뉴캐슬발생이 시작되고 있다. 이로 인한 생산자의 피해는 육계시세의 하락이나 생산효율의 저하등과

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하다. 현재 우리나라 각종질병의 발생은 계절을 초월한 전천후 발생상태하에 놓여 있다. 양계산업규모의 팽창이나 질병발생 가능성의 고조에 비하여 우리나라 방역기관(각종 연구소 포함)은 10년전 그대로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79년에 들어와서 염려되고 있는 문제들은 이밖에 또 있다. 2월부터 실시될 서울지역 축산을 가공처리법(이하 축가법이라 칭한다.)에 대한 생산자의 관심은 지대하며 김해 대저지역의 무허가 양계장 강제철거와 이에 따른 이전신축문제도 심각하다.

2. 분석

이상과 같은 육계가격 400원대와 초생추의 덤핑판매는 왜 나타났는가?

77년도까지 호황을 지속한 육계업은 생산자들에게 “입주는 돈”이라는 인식을 심어 줬고, 이의 영향으로 77년 가을부터 78

중 대 추 분 양

- 엄선된 부화장의 우수한 품종
- 완벽한 기술관리 (세이버, 야-콘)
- 철저한 예방접종
-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지역
- 분양후 지속적인 관리기술 상담
- 새로운 계사
- 70일 기준분양

보드람 농원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산 1번지

☎ 서울 46-4442

년 2월경까지 기존업자의 사업확장과 신규업자의 대폭 증가로 곳곳의 산골짜기마다 하얀 비닐육용계사가 꽃을 피웠고 초생추 구입난이 극심했으며, 불량추와 왕병아리, 또는 병아리 사깃꾼등이 활개를 쳤다. 이의 결과는 당연한 생산과잉현상을 나타내어 78년 봄철경기는 약 2~3개월 동안 심한 침체를 겪었고 또 이 결과는 78년 추석이 지난뒤의 육계업은 굉장한 불경기 이리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78년 5월 중순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시세는 계속 호황을 보였고 7월 하순부터 8월~9월까지 육용초생추의 덤핑판매를 겪으면서 78년 김장철 경기는 사상최고의 결과를 낳았다. 77년말 경기와 78년초 구정까지의 호경기와 78년 김장철의 호경기는 78년말 년시 병아리와 79년초 구정병아리의 과다한 입추현상을 낳았고, 78년초의 닭고기 소비급증에 정반대현상으로 올해 신년의 소비위축은 연말년시 물량을 그대로 이월시켰다. 78년 김장철의 너무 폭등한 시세는 소비자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 주었으며 생산농가의 시세가 하락된 79년 1월에도 시장의 소매시세는 비슷한 하락세없이 그대로 지속되므로 소비증가를 유도치 못하고 있다.

육계 생산자들은 76년도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파동을 너무 심하게 당하였으므로 보완되고 점진적 실시를 내세운 79년 2월의 추가법에도 동일한 생리적인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추가법의 두려움과 78년 12월의 시세하락은 입추기피현상으로 나타났고, 서울지역 다음으로 큰 시장안 대구와 부산지역도 뉴캐슬질병의 만연과 김해·대저지역 무허가 양계장 강제철거를 당하여 국내 삼대시장인 서울, 부산, 대구가 동시에 입추기피하는 사상최초의 초생추 판매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동시에 77

년까지 부화업자들의 인식은 겨울병아리는 별 불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78년부터는 연말년초의 병아리 장사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한 신규 군소 부화업자의 대폭 증가가 이와 때를 맞춰 초생추 덤핑가격 수당 50원 짜리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상황을 정리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육계업계는 상처난 얼굴로 지내오고 있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하락되는 육계시세의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제 생산자 모두의 관심도는 구정에 얼마나 닭고기가 소비될 것이며, 보통의 인식이 덤핑 병아리를 입추하면 재미본다는 생각이 3월에 가서 얼마나 적중할 것이냐하는 데 있다. 체화물량과 사회경기로 보아 구정경기가 좋지 않을것같은 인상과 2월의 추가법에 대한 두려움과 구정물량이 이월되었을 때의 경기하락 예상과 덤핑병아리이지만 현재입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어떤 정보가 상식화 되면 이미 가치가 없다는 법칙대로 3월경기도 별불일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으로 1979년 1월 15일 현재의 생산자는 한껏 우울해 지고있다.

3. 79육용종계 250만수

몇년 동안의 부화업 호경기와 종계구입난 현상으로 부화업자들은 불만속에 지내오다가 작년부터 풀리면서 올해 79년도에는 그야말로 완전 해갈된 상태에서 마음껏 입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 부화업자외에 군소 종계업자들이 부지기수 나타났으며 웬만한 생산자들은 종계 1,000~2,000수 정도를 대개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육용종계의 공급능력은 얼마나 되며 얼마나 입식될 것인가? 간단히 짚어

표 1. 77-79년 鷄界분석(肉用鷄-서울기준)

구 분	77	78	79	비 고	
경 기 비 교	신 정	경기 좋음. 생산량 부족. kg 당 700원	소비격증, 경기최상, 일 반경제 동일. kg 당 820원	소비격감, 경기최하 kg 당 450원	
	구 정	경기양호. 구정 전부 터 약 1개월간 호조. kg 당 750원(구정 2.1)	경기양호. 신정보다 소비약함. 구정물량 이 월 kg 당 800원 (구정 2.7)	(구정 1.28)	
	봄 철	소비침체. 2月下순 부 터 5月 초순까지 불황 kg 당 480~500원	생산과잉. 2月 하순부 터 5月 초순까지 불황 kg 당 460~550원		
	5월5일	소비상승기록제 역환 이후 상승	소비상승 기록제 역환 이후 상승		
	여 름	북경기최상. kg 당 850원	북경기 양호. kg 당 780원		
	추 석	경기보통. 소비감소. 추석물량이월. kg 당 680원(추석 9.27)	경기양호. kg 당 700~720원(추석 9.17)		
	김 장 철	경기최상. kg 당 780원	사상최고. kg 당 1,000원		
초생추시장 경	4월 병아리 일시 처짐 8~9월 병아리덤핑. 10월부터 병아리구입 어려움.	2월까지 초생추 구입 난 극심. 4월 병아리 처짐. 7월 하순부터 9월까지 초생추덤핑, 10~11월 병아리부족. 12월부터 덤핑.	1월초순까지 사상 최악의 초생추 덤핑사태		
부화업자초생추시장 관념	봄병아리와 북병아리 우선	봄병아리와 북병아리 우선	봄병아리와 북병아리와 겨울병아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종계분양수추	80만수	160만수	250만수		
종계수입정책	극히 제한. 수입금지 후 최초 개방	수입완화	수입개방추정		
계 구 밀 도 (년간총 소비 수수)	약 1억만수 (육계 약 7천만수)	약 1억3천만수 (육계 약 1억만수)	약 1억9천만수 (육계 약 1억5천만수)	미국 76년도 육계 총소비 수수 32억만수	
질 병	ND, CRD 다발	ND, CRD 만연	ND, CRD 만연예상		
시민의김장에 대한 관심도	관심 보통	고추가루 파동으로 관심 최고			
일반경제및시 장	수출 100억불 달성과 경기 호황	금융긴축과 8.8부 동 산규제 조치로 위축	금융긴축, 물가안정정책 계속. 경기침체예상		

축산에 대한 정책 및 여론	관심도 보통	육류소비 급증관심과 최대의 장려정책	쇠고기 생산포기, 육류 수입 완전개방, 축산 장려 완전 후퇴.	
동물약품년간총외형	90억	150억	230억	라이선 제외
배합사료년간총생산량	190만톤	250만톤	350만톤	

참 고 사 항
(미국鷄界)

- 계란시세 : 농가 20원/개, 도매 23원/개, 소매 31.60원/개
- 계란소비 : 270개/1인년간(350개에서 하락)
- 계육소비 : 20kg/1인년간(계속증가)
- 육용조생추가격 : 60원/수
- 육계사료가격 : 85원/kg
- 육계시세 : 농가 254원/kg, 도계품 462원/kg, 소매 748원/kg

서 한협, 천호, 한일, 신기, 등 4개농장이 각각 50만수씩 분양하고, 삼일부화장, 한국 카길등과 수입개방되는 종계를 고려할 때 250만수는 거뜰히 넘어선다. 아무리 소비가 급증한다고 하지만 77년 80만수, 78년 160만수, 79년 250만수로 증가되는 육용종계는 분명히 과잉상태이다. 경제활동은 수익성을 쫓아서 흐르는 물과 같이 변동한다. 원종농장에게 생산을 억제하라던가 분양을 조정하라는 등의 요구는 자유 경제 체제하에서 무리이다. 오직 부화업자나 종계업자 자신이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호황과 불황의 파도속에 흥하고 도산하는 기업경영사는 항상 같이 섞여 있기 마련이다.

4. 결론 방역, 생산성 재고, 합리경영

생산자가 웃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최근 들어서 경기의 전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육계경영경력 20년정도의 베테랑 생산자도 이제는 경기에측을 못하 겠다는 것이다. 오직 좋은 상품을 저렴한 원가로 생산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생산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각종 요소는 많다. 그러나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역시 생산을 잘하는 길이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입추의 기준은 경기전망보다 보육계사의 오염도

와 방역에 두어야하고 성실하고 세심한 관리로서 생산효율을 높여야 한다. 계구밀도의 증가와 함께 점점 고조되는 질병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방역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육심을 낸 무리한 경영은 피해야 한다. 생산자가 앞으로 웃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방역과 생산효율 향상과 합리적인 경영밖에는 없다.

결론에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사항이 있다. 앞서서도 기록하였지만 정부의 축산 정책은 78년도 방침대로 장려되어야 한다. 물론 국민경제를 희생해가면서 까지 축산 부문을 우대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물가 안정에 따르는 육류수입개방정책과 축산 장려 정책이 운영의 묘로서 병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식량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축산업은 반드시 보호육성되어야 한다. 쇠고기 생산포기 라는 말은 그야말로 충격 적이다. 질병이나, 사료품질의 저하나 각종 어려운 요인들은 생산자가 모두 감당할 수 있고 풀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축산장려정책 만큼은 당국이 추진 해 줘야 한다.

축산업 보호육성정책만이 장기적인 식량자원 확보의 가장 유일한 수단이고, 축산업자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